

## 고용주 대상 실업보험 개혁안

### 실업보험 소개

실업보험은 본인의 과실 없이 실직하는 근로자에게 실업 수당을 제공합니다. 각 주는 자체의 실업보험제도를 운영하며 연방정부의 감독을 받습니다. 근로자는 실직하기 전에 최소 일정액의 소득이 있고, 취업 준비와 의사가 있으며 구직활동을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보험 자금조달 방법

본 프로그램은 고용주 보험료로 자금을 조달합니다. 주 소재 고용주가 납부하는 실업보험료는 아래와 같이 2개 유형으로 나뉩니다.

- 연방실업세법(Federal Unemployment Tax Act, FUTA)은 연방 및 주 차원의 프로그램 운영과 연방 실업 연장, 주 정부 대출을 지원합니다. FUTA 보험 요율은 전 고용주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뉴욕주 실업보험료는 실업수당 청구자에게 주 차원의 정기 실업급여를 지불합니다. 보험 요율은 실업보험 신탁기금(Unemployment Insurance Trust Fund)의 재정 건전성보다 대부분 고용주가 해고한 종업원 수를 토대로 결정됩니다. 고용주는 주 보험 가입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FUTA에 대해 공제를 받지만, 주 정부가 연방 대출을 미납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감소될 수 있습니다.

### 개혁이 필요한 이유

- 실업보험 신탁기금은 지불 불능에 빠졌습니다. 신탁기금은 주당 급여를 지불하는 기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 정부는 고용주가 납입하는 보험료로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불할 수 없는 경우 연방정부에 기금을 차입해야 합니다. 불황 시 인상된 비용을 보상하기 위해 뉴욕은 다른 주와 마찬가지로 연방정부로부터 기금을 차입하였습니다. 2013년 초 뉴욕의 부채는 35억 달러였습니다. 고용주는 법률에 따라 이 금액과 함께 이자를 연방정부에 상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대금은 FUTA 세율 인상과 이자 과금을 통하여 정액 요금으로 고용주에게 청구됩니다.
- 고용주는 예측할 수 없는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신탁기금을 개혁하지 않는다면 지불불능 상태가 유지되고 경기 변화를 견딜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고용주에 대한 연방 및 주 정부 비용의 인상과 예측 불가 상태는 계속될 것입니다.

### 개혁의 대상

이자 지불금 절감. 개혁을 통해 고용주는 - 예정보다 2년 앞서- 2016년까지 연방정부에 35억 달러를 상환하여 이자 지불액을 2억 달러 가까이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주 자금 절약 예상 (10년간)	
지역	절감 예상액
캐피탈 지역	2100만 달러
센트럴 뉴욕	1600만 달러
핑거 레이크스	2400만 달러
허드슨 밸리	4100만 달러
롱 아일랜드	6000만 달러
모호크 밸리	800만 달러
뉴욕 시	1억 8300만 달러
노스 컨트리	600만 달러
서던 티어	1100만 달러
웨스턴 뉴욕	3000만 달러
<b>주 전체</b>	<b>4억 달러</b>

지속가능성과 예측성 개선.

개혁은 실업보험제도를 자기수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제도로 만들기 위하여 제도를 재편합니다. 실업급여 지불을 위한 차입 위험이 감소하고 신탁기금의 건전성이 회복되면 고용주의 보험료도 인하됩니다.

사기 방지. 신설되는 사기 적발 및 방지 대책은 실업보험 사기 퇴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 구현. 개혁을 통해 실직이 종업원의 과실인 경우 (예, 자발적 퇴사 또는 부정행위로 인한 퇴사) 고용주는 전 종업원에게 실업급여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업급여 청구자의 재취업을 장려합니다. 개혁은 실업급여 청구자가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이행하여 신속하게 재취업하도록 요구합니다.

### 이미 시행중인 개혁 조치

일자리 나누기 프로그램(Shared Work Program)은 일시적인 실직 상태에 있는 종업원에게 부분 실업보험 급여를 제공하여 근로자 해고의 대안을 제공합니다. 개혁 조치는 종업원이 2인인 사업체까지 프로그램을 적용하며 시간제

종업원도 포함됩니다. 또한 실업급여금은 최대 26주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주법의 변경을 통해 본 확대 프로그램은 연방 배상이 종료 예정되는 2015년 8월까지 운영될 것입니다.

### 2013년 10월 1일 발효되는 개혁 조치

답변 지연. 연방 요건에 따라 고용주나 그 대리인 (예, 급료지급 대리인)이 노동부 문의에 대한 답변을 지연하거나 제출 정보가 미비하여 실업급여 청구자에게 초과지불되는 경우 고용주에게 청구되는 대금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 2014년 1월 1일 개시되는 개혁 조치

임금 기반. 고용주는 임금 기반이라고 하는 일정 상한까지 각 종업원의 소득에 대한 실업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임금 기반은 매년 1월 1일 아래와 같이 조정합니다.

2014 - \$10,300	2021 - \$11,800
2015 - \$10,500	2022 - \$12,000
2016 - \$10,700	2023 - \$12,300
2017 - \$10,900	2024 - \$12,500
2018 - \$11,100	2025 - \$12,800
2019 - \$11,400	2026 - \$13,000
2020 - \$11,600	

2026년 이후 임금 기반은 매년 1월 1일 주 평균 연봉의 16퍼센트로 조정합니다.

보험 요율표. 고용주에 적용되던 최하위 6개 보험료는 폐지합니다. 신탁기금 잔고가 증가하면 전체 고용주 보험료는 인하됩니다.

자격 재심사 기준. 실업급여 청구자는 급여가 소진되거나 부정행위로 실격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취업 제의를 거절한 후 재차 자격을 취득하려면 본인의 급여 요율보다 10배의 소득을 올려야 합니다.

해고 또는 퇴직 수당. 실업급여 청구자가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최대 급여 요율보다 높은 해고 또는 퇴직 수당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없습니다.

연금 지불액. 실업급여 청구자가 지불청구에 부과할 수 있고 고용주가 출연한 연금을 고용주로부터 추심하는 경우, 실업급여 청구자의 급여가 삭감될 수 있습니다.